

# 성폭력,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과제



김지연  
신사중합사회복지관 가족전문상담센터/사회복지사

어느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만났다.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야

기 했다. “저 오늘 성폭력 당할 뻔 했어요” 난데없는 아이의 말에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는 차분히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 어떤 아저씨와 엘리베이터

를 탔는데 1층과 2층을 지나고 3층에서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를 안으려고 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아저씨는 자꾸 자기를 안으려고 했다고~ 다행히 5층 문이 열려 아이는 내리고 아저씨는 가벼렸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하얀 머리를 하고 있었고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짧은 시간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새삼 또 들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참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상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우리 복지관 성폭력예방인형극을 관람하였던 아이였으며,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센터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최소한이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최소한이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 알려주는 것 필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인형극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연히 만난 이 친구도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여 불유쾌한 감정들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데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으며, 앞으로의 교육 계획에 있어서도 큰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도덕적, 정신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최소한이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때다. 교육활동이나 주변에서 발생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의 성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각종 기관들에서는 최근 여러차례 발생하는 성폭력사건들을 접하면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허겁지겁 대책을 찾기도 한다.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성폭력이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이 신체적인 것 뿐만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큰 몫이기도 하다.

법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성폭력은 범죄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고,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끊임없이 조성되고 있고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성폭력 범죄, 예방이 최선

2006년 2월 27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단체는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포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범죄 추방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4개 회원단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더욱 강력한 법과 제도를 확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성범죄자의 자세한 인적사항 공개,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13~19세 청소년의 지원, 전자팔찌법 도입,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화 교육,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는 성인 뿐만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종합적 접근 가능한 복지관, 사회복지사 체계적 접근 위한 시스템 정립 필요

우리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고민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발생시 지원방법으로 상담지원, 의료적지원, 법적 지원, 경제적지원, 사회복지적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성폭력 문제는 한가지 분야의 지원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의 후유증은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 위협이다. 성폭력이 일어났으나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회복지관은 문제 발생 및 해결에 있어 즉각적으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여타 기관에 비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전문기관 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수행하기에 벅찬 문제들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네트워크 및 자원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이 즉각적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며, 시민과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